

〈제 53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지역 어린이들과 멘토링 봉사활동 펼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7일 오후 광주 플리마코협동조합에 새롭게 오픈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청소년 30여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멘토링 봉사활동을 가졌다.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문화 확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이번 멘토링 봉사

활동은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에서 인연을 맺은 지역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지며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방송

◆ kbc 광주방송 조억현 대표이사 사장 연임



kbc 광주방송 조억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2일 개최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연임된 조억현 대표이사 사장은 “오는 6월 광천동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지역 최초의 UHD 드라마를 자체 제작해 지역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광주방송의 제작 역량을 전국에 선보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 출신인 조억현 대표이사 사장은 2011년 광주은행 수석부행장을 역임하고 2013년 kbc 부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아 지역방송의 위상 강화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해 오고 있다.

금호고속

◆ 이덕연 사장, 전남버스조합 이사장 연임

금호고속 이덕연 사장은 지난 2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전남버스조합 제65기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제23대 이사장으로 연임된 이덕연 이사장은 “버스업계가 만성적인 경영수지 적자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도에서 버스준공영제 도입 용역을 조속히 실시할 것과 주 52시간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원 확보와 인건비 지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요금인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남화토건

◆ 광주시 시정자문회의 신임 의장 추대

남화토건 최상준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6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주시 시정자문회의 창립총회에서 2014년 제28회 시민대상 수상 자격으로 신임 의장으로 추대됐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유서 깊은 시민대상은 1987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엄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 등 5개 분야에서 시의 명예선양과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출범한 광주시 시정자문회의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회의 뿐만 아니라 이메일, SNS, 전화 등 온라인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435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3월29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송재용 서울대 교수를 초청 <퍼펙트 체인지: 패러다임 변화와 저성장시대, 한국기업의 전략 패러다임을 바꿔라>란 주제로 제143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한국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21세기형 경쟁 환경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 국내외 경제 환경에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 기업들도 전략 패러다임을 원점부터 다시 점검하고 재설정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전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이유로 첫째, 저성장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이 초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셋째, 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다.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의 변신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성격을 띠는 신생 산업에서는 일종의 임계점이 있다. 플랫폼 사업에서 글로벌하게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 한국 기업 혼자 이 시장들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으로 미국 기업,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파트너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미·중·일과 경쟁이 가능한데 수직적 계열화를 한꺼번에 다 털어버릴 수는 없고, 옥석을 가려서 직접 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야 한다.

전략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하려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1. 노사 동향

■ 경제계는 3. 27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입장' 발표

-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보장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참고 1] 경제계 5대 요구사항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체근로 허용	▲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제한하더라도 단기·파견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형사처벌 규정 존재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대부분의 국가는 직장점거 자체가 위법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활동 유지상태의 점거(부분적·병존적)를 허용
쟁의행위 찬반 투표절차 보완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결과 효력의 유효기간 설정 등의 보완이 필요함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 주요 선진국들은 노사자율로 정하거나, 제한하더라도 3년, 5년 등 우리나라보다 길게 규정함.

■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3. 28 「전체회의」 개최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경제계의 요구사항인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사 간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 종결
- 경제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 경제계 요구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에 반대

Ⅲ. 노사 및 판례동향

[참고 2]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 경제계 요구안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	2단계 경제계 요구안
①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②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③ 정부의 노조설립 심사권 축소 ④ 특수형태종사자 노동권 보장 ⑤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 확대	① 대체근로 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④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⑤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 노동계는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한편 경제계의 협약 비준 관련 입장 비판

-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제계의 요구사항은 방어기본권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무력화” 하는 내용이라며 비판
 - 또한 정부에게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
-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3. 27 「전국노동자대회·개최」(1만 여명 참여)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를 요구

[참고 3]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 주요 내용

-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 국제기준인데 경총이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 경총이 요구하는 방어권은 노동 3권을 짓밟는 사용자 ‘공격권’임.
- ▲ 경총 주장을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끼워 넣으려 함.
- ▲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 대상이 아니며 즉각 비준해야 함.
- ▲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개악은 중단되어야 함.

- 한편,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3. 26 「비상중양집행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사용자가 주장하는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 발표

■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요청 보류

-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고용부는 3. 27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3. 29로 연기
 -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기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진행할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방식(구간설정 위와 결정위로 이원화)으로 진행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
- ※ 기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 31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함.
- 이에 한국노총은 기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 기한 준수를 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3. 27)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심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

■ 한국노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 발언에 대해 항의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계의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해 입법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 요구
- ※ 한국노총 주요 요구 :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 홍영표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계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위해 더 큰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다만 지난 대표연설 발언은 노동계에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데 감사를 표하며 향후 정책 협의를 더욱 긴밀히 진행하자”는 입장 전달

■ 사무금융연맹은 3. 26 「확대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원 불신임 안건 통과

- 이운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3. 25 자진 사퇴했고,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 결과 모두 가결
- 사무금융연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현정 사무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

[참고 4] 사무금융연맹 및 사무금융노조 개황

구분	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운경(축협)	김현정(BC카드)
주요 소속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교보, ABL 등) ▲ 전국농협협동조합 ▲ 일반사무(건설공제조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험(MG, 한화 등) ▲ 증권(신한, 한화 등) ▲ 카드(KB국민, BC 등)

- 조만간 차기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차기 집행부가 사무금융노조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그간 추진해온 산별노조 통합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사무금융연맹 규약상 위원장 궐위 시 60일 내 보궐선거 실시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협상 재개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3. 8 협상결렬 이후 19일 만인 3. 27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3. 28 집중교섭 진행 예정

※ 3. 8 협상결렬 이후 3. 20~22 지명 파업 진행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임금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작업 전환배치 시 노조 합의 요구와 같은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에 대해 이견 지속
- ※ 임금 부분 합의 사항 : 기본급 동결, 100만원 일시금 지급, 300만원성과격려금 지급 등
- ※ 노조 주요 요구 : ▲직무 아웃소싱 시 노조 협의를 합의사항으로변경, ▲직원 전환배치 시 노조 협의를 합의사항으로 변경, ▲노동강도 완화